

창세기 네번째 메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사람이 육신에의해서만 살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죄악이 가득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향해 달려 갈 수 밖에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있다.(창 6:5).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탄 하셨고 결국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사람에게서 피할 수 없는것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밝혔는데 '죽음' 과 심판'이다.(히 9:27)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 될까?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 을 되돌려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바람을 비유해서 아주 '기이한 방법' 으로 소개 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 이다. (요 3:1-8)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신의 '거듭남' 이 자신 스스로 믿기로 결정한 믿음에의해서 거듭나서 '구원' 받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중생)은 신적인 영역으로 사람이 결정 할수있는 것이 전혀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을 하나님 손에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어찌 스스로 찾아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럴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신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감정으로 느낄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감정으로 느껴져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

신의 감정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감정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영' 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악한세대의 영적 혼돈에서 '빛'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